

삼성전자, 광주에 '벤처 허브' 조성

글로벌 스마트 가전 생산 거점 육성
광주과기원에 반도체 학과 신설도
C랩 아웃사이드 광주캠퍼스 개소
인공지능 혁신 스타트업 육성 시작

삼성전자가 광주시에 손잡고 국가 인공지능(AI) 혁신 거점인 광주에 '벤처허브'를 조성하고, 호남권을 '글로벌 스마트 가전 생산 거점'으로 육성키로 해 지역 경제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내년부터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지역 반도체 인력 양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0일 광주 서구 삼성화재 사옥에서 삼성전자 'C-Lab(랩) 아웃사이드 광주 캠퍼스' 개소식이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원표 삼성전자 글로벌리처치 사장, 송갑석·양향자 국회의원과 참여업체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캠퍼스는 약 1554㎡(470여평) 규모로 스타트업의 업무공간과 네트워킹 공간, 회의실, C랩 파트너 사무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C랩 아웃사이드'는 삼성전자가 지역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에서부터 기술 육성, 사업화까지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고 삼성전자의 협력 파트너로까지 성장시키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의 'C랩 아웃사이드'의 지역 캠퍼스 개소는 지난 2월 대구캠퍼스에 이어 두 번째다.

광주캠퍼스는 지난 2018년부터 삼성전자가 운영해온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의 특징과 업체 선발, 육성, 사업 협력, 투자유치 등 노하우를 그대로 이전해 광주지역 스타트업을 지원·육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매년 광주에서 별도로 공모전을 진행해 광주 소재 스타트업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줬다. 전문적으로 육성을 담당하는 삼성 전자 인직원이 업체별로 1대 1 매칭돼 밀착, 맞춤형 지원도 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의 운영노하우가 축적된 'C랩 아웃사이드 서울'과 'C랩 아웃사이드 광주'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 통해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20일 광주 서구 삼성화재 사옥에서 삼성전자 'C-Lab(랩) 아웃사이드 광주 캠퍼스' 개소식이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원표 삼성전자 글로벌리처치 사장, 송갑석·양향자 국회의원과 참여업체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우수 스타트업 업체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고 성장해 지역경제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가 광주에 'C랩 아웃사이드 광주'를 연 배경에는 민선 8기 들어 5000억 창업 펀드 조성, 호남 최대 창업밸리 조성 등 창업생태계 혁신을 추진하는 광주시와 상생협력을 통해 우수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지역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광주를 방문해 강기정 시장에 광주캠퍼스 추진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첫 발걸음을 내딛 'C랩 아웃사이드 광주'에는 전문가 심사를 통한 공모전을 거쳐 AI, 헬스케어, 소재부품 분야 등 지역 내 혁신 스타트업 5개사가 선정됐다. 무엇보다 'AI 혁신거점'이라는 지역 특성에 맞게 AI 분야 스타트업을 중점 선발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선정된 기업은 ▲경량화 솔루션을 적용한 AI모텔 개발 기업 '클리카' ▲AI기반 생체정보 인증·결제 솔루션 기업 '고스트페이스' ▲AI활용 동물 생체 분석 및 가족케어 플랫폼 개발 기업 '인트폴로우' ▲열광 영상으로 건강·감정 상태 모니터링 솔루션 기업 '감성택' ▲에너지 절감 냉각 소재(필름·패인

트) 개발 기업 '포엘' 등이다.

이들 기업에게는 최대 1억원의 사업 지원금과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삼성전자 및 계열사와의 협력 기회 연결, CES 등 국내외 IT 전시회 참가, 국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1년간 서울의 'C랩 아웃사이드' 스타트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송영민 포엘 대표는 "C랩 아웃사이드로 선정되어 큰 자신감을 얻었다"며 "앞으로 삼성전자의 협업 기회가 가장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 광주사업장을 필두로 호남권을 '글로벌 스마트 가전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당장 다음달부터 광주사업장에서 건조기 제품을 신규 생산한다. 연간 25만대 이상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가전제품용 모터 생산은 2025년까지 현재 생산량에 비해 2배 이상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광주사업장에 건조기를 신규 생산키로 하면서, 지역 협력사에는 금형과 관련 자재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와 인력 채용 등이 이뤄지는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광주시와 삼성전자,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오는 27일 반도체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학사와 석사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는 반도체 계약학과로, 교육기관은 총 5년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신입생을 선발해 내년 3월부터 계약학과를 운영하며, 모집인원은 2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부담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도체 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 취업하게 된다.

/최권민 기자 cki@kwangju.co.kr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검수완박' 권한쟁의 현재, 23일 선고한다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현재는 20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29일과 5월3일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중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기소만 할 수 있게 한다는 형사사법체계 구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나왔다. 첫 결과물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대폭 제한한 1차 수사권 조정(2020년 국회 통과·2021년 시행)이었다. 지난해 4월15일 민주당 의원 171명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아예 없애는 '검수완박' 법안(원안)을 발의했다.

원안 내용은 법사위 파행,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 마련과 재파행을 거치며 수정을 거듭했고, 결국 검찰에 2대 범죄 수사권을 남기는 현행 '검수완박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지는지로 요약된다. 전자는 국민의힘이, 후자는 법무·검찰이 주안점을 두는 영역이지만 두 쟁점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어 상호보완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전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농번기 농촌 '일손 구하기' 전쟁 ▶6면
굿모닝 예향 - 여수 정도 창작 스튜디오 ▶18·19면
서툰 '안세영 전성시대' 열렸다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변호사 영입인사	변호사 개업인사
저희 [법무법인(유한) 맥]은 이번에 서울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퇴임한 이은강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새로 영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준높은 법률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3. 법무법인(유한) 맥 구성원 소개 : 박강희, 조재건, 서정안, 문법진, 구희승, 권오성, 신광필, 차현영 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106 법무법인(유한) 맥 4층 대표전화 : (062) 232-8800 업무개시일 : 2023.3.6. 개업식일시 : 2023.3.23(목) 16:00	저는 이번에 정든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유한) 맥]에서 대표 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학력 및 경력 ◇ · 전남 광양, 광주 동산초, 동성중, 광덕고 졸업 ·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89학번) · 사법시험 40회 합격,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서울고검, 춘천지검 인권보호관 · 광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 창원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 수원지검 공판송무부 부장검사 · 광주지검 목포지청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법무법인(유한) 맥 대표변호사 이은강 올림

북한, 800m 상공서 전술핵폭발 모의 실험

북한이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는 전술탄도미사일(KN-23·이스칸데르)의 공중폭발 실험을 감행했다.

핵 선제 공격을 위협했던 수사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실전에서 사용할 모의 전술핵을 공중에서 폭발시킨 실험을 단행한 것은 남측에 대한 핵 위협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8~19일 '나라의 전쟁 억제력과 핵반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해당 부대들을 전술핵 공격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으로 명명했다.

특히 훈련 이틀 차였던 지난 19일 오전에는 전술핵 공격을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

했다. 통신은 "적 주요대상에 대한 핵타격을 모의한 발사훈련이 진행되었다"며 "미사일에는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전투부가 장착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탄도미사일은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조선동해상 목표 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폭발함으로써 핵전투부에 조립되는 핵폭발조종장치들과 기폭장치들의 동작민중성이 다시 한번 검증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29일과 10월 1일 전술탄도미사일 공중 폭발 실험을 했지만, 폭발 고도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KN-23으로 식별됐다. /연합뉴스

Mercedes-Benz Certified

이보다 쉬울 수 없다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 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존재
- 국내 수입차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